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삼도2동 빈 점포 사업 2기 시동

# 문화 거리 활성화 방점... 1년마다 평가 재임차

2014~19년 1단계 사업 종료 입주작가·지역민 의견 수렴 올해부터 2기 사업 지속키로 12개 빈 점포 14팀 입주 확정 재해 등 대비 보험가입 의무화

▶지난 5년 운영 1단계 사업 총 21팀 입주=빈 점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삼도2동 문화의 거리 일대다. 2019년 말 기준 사업 대상 빈 점포는 12개소에 이른다. 지난 5년간 총 5억 6800만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에는 모두 21명(팀)이 거쳐갔다. 빈 점포 들은 상시 개방을 통한 창작품 판매 장이나 워크숍 운영, 전시·공연장, 작업실 등으로 쓰였다.

▶청심로 아케이드 등 대상지 확대 계획=이번 입주예술인 선정 과정에는 서류심사만이 아니라 활동계획서, 운영계획서 등을 토대로 대면 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공예 4, 회화 3, 공연·음악 2, 아트숍 3 등 총 14명(팀)을 뽑았다. 올해부터는 건물임차시 건물주와 입주작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해결되지 않아 갈등도 빚어졌다. 결국 해당 침수 공간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입주작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도 달라진 내용이다. 1년 단위로 원도심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 취지에 맞춰 평가한 후 재임차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번엔 1기 입주 예술인들도 지원 자격이 주어져서 3명을 제외하면 2019년 입주예술인과 동일한데 2기부터는 일정한 입주 시기가 지나면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입주작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도 달라진 내용이다. 1년 단위로 원도심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 취지에 맞춰 평가한 후 재임차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번엔 1기 입주 예술인들도 지원 자격이 주어져서 3명을 제외하면 2019년 입주예술인과 동일한데 2기부터는 일정한 입주 시기가 지나면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발생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

▶입주작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도 달라진 내용이다. 1년 단위로 원도심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 취지에 맞춰 평가한 후 재임차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번엔 1기 입주 예술인들도 지원 자격이 주어져서 3명을 제외하면 2019년 입주예술인과 동일한데 2기부터는 일정한 입주 시기가 지나면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입주작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도 달라진 내용이다. 1년 단위로 원도심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 취지에 맞춰 평가한 후 재임차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번엔 1기 입주 예술인들도 지원 자격이 주어져서 3명을 제외하면 2019년 입주예술인과 동일한데 2기부터는 일정한 입주 시기가 지나면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입주작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도 달라진 내용이다. 1년 단위로 원도심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 취지에 맞춰 평가한 후 재임차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번엔 1기 입주 예술인들도 지원 자격이 주어져서 3명을 제외하면 2019년 입주예술인과 동일한데 2기부터는 일정한 입주 시기가 지나면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백광익의 '오름 위에서'.

## 우주에 닿을 듯 오름 위 부는 바람

백광익 ICC제주 초대전 '오름 위에서' 근작 소개

제주 중진 백광익 작가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제주 갤러리에서 새해 첫 초대전을 열고 있다.

▶작가 소개=백광익 작가는 지금까지 미국, 중국 등 국내외에서 34회 개인전을 치러왔다. 제주프레시엔날레 운영위원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제주국제예술센터 이사장, 동아육선 전속 작가로 있다.

▶전시 일정=이번 전시는 '오름 위에 부는 바람'이란 제목을 달았다. 전시에 맞춰 제작된 100호~300호 크기 '오름 위에서' 연작 등을 볼 수 있다.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저 매일 그린다'는 마음으로 씩씩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의 열정이 담겼다.

▶문의=064)735-1001

▶전시 일정=이번 전시는 '오름 위에 부는 바람'이란 제목을 달았다. 전시에 맞춰 제작된 100호~300호 크기 '오름 위에서' 연작 등을 볼 수 있다.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저 매일 그린다'는 마음으로 씩씩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의 열정이 담겼다.

▶전시 일정=이번 전시는 '오름 위에 부는 바람'이란 제목을 달았다. 전시에 맞춰 제작된 100호~300호 크기 '오름 위에서' 연작 등을 볼 수 있다.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저 매일 그린다'는 마음으로 씩씩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의 열정이 담겼다.

##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 오래도록

김산 일곱 번째 개인전 태곳적 제주 연상되는 '픽처레스크' 주제 작업

자연의 참의미를 새기며 제주를 그려낸 청년 작가가 있다. '픽처레스크(PICTURESQUE)'란 이름을 달고 일곱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는 김산 작가다.

▶작가 소개=제주에서 나고 자란 김 작가는 지난 1일부터 뽕밭도갤러리(제주시 연삼로 316)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전시에서 한지나 캔버스 위 아크릴 작업으로 천지연, 방선문, 탐라계곡, 면물작 등 제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을 불러냈다. 그것들은 작가가 숨은 곳, 사라져가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드로잉을 한 뒤 재조합해 만들어낸 창조 공간이다.

▶작품 소개=김 작가는 "한자 풀이처럼 스스로 그려낸 자연은 손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며 "인간의 욕심으로 끊임없이 몸살을 앓아 있는 제주의 자연을 소중히 여겨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제주를 자연을 잃어버리는 순간 제주가 아니다"라고 작업 의도를 설명했다.

▶전시 일정=2018년 제주우수청년작가상을 수상했던 김 작가는 서울과 제주에서 개인전을 이어왔다. 전시는 이달 29



김산의 '분향'.

일까지. 뽕밭도갤러리 전시가 끝나면 3월 2~4월 29일엔 제주도청 로비

갤러리에서 소품전을 벌일 예정이다. 문의 064)755-0006.

서귀포시민 열 중 일곱 1회 이상 문화예술 관람 서귀포시 실태조사 결과

서귀포시민들의 향후 문화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문화예술 향유실태 조

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한국예총 서귀포지회에서 17개 읍면동 지역 시민 1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활동 공간 이용, 문화예술 참여 활동 등 총 6개분야 115개에 이른다.

▶조사 결과=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1회 이상이 136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4%를 차지했고 그중 영화 관람

이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문화예술관람 부문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중음악이 총점 5점에 평균 4.2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관람을 통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반면 문화예술 미관람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37.8%로 가장 높았다.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 조사에서

는 영화관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연장, 도서관, 문화센터, 읍면동 공간, 미술관 등의 순이었다. 문화활동을 즐길 공간에 대한 '부족하다'는 의견이 59.3%였고 문화예술 공간에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공연 관람과 영화 관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법적 문화도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 제주문예재단 차기 이사장 전국 공모

이달 25일까지 원서 접수 복수 추천 뒤 도지사 임명 결원 이사 1명도 공개모집

▶공모 개요=제주문화예술재단이 차기 이사장을 전국 공모하고 있다.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문예재단은 정관에 의거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개모집 기간, 절차, 심사 기준 등 임원 공모내용을 확정짓고 10일 신규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이사장 임명=이사장은 상임 상근직이다. 공공기관의 미래비전 제시와 경영혁신 마인드를 갖춘 자, 공공기관과 문화예술기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조직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외 관계자와의 소통·조정 능력을 갖춘 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절차=문예재단은 공모 접수 후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 인원의 2배수 후보자를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된다. 문예재단 이사장은 도지사의 임명을 받고 취임한다. 신규 이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공모 대상=이와함께 문예재단은 제주민예총 이사장을 지낸 강정호 이상의 사임에 따라 결원에 따른 비상임 이사 1명도 공개모집하고 있다. 새로운 이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다.

▶문의=064)800-9110, 9114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효율수소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효율수소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